

## 유리 천장

눈부시게 아름답고 화려하다 생각해서 부러웠다  
감히 오를 수 없는 높이라 생각해서 부러웠다  
내가 흉내 낼 수 없는 영롱함이라 생각해서 부러웠다  
반짝반짝 빛나듯 당당하다 생각해서 부러웠다

거짓과 위선의 화려함을 따라 올라가려 했다  
부정과 더러움이 치솟는 높이를 따라 올라가려 했다  
깨끗한 척하는 것도 모르고 함께 올라가려 했다  
거짓 방패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숨어 올라가려 했다

눈부시게 투명함이 너의 속을 보여줘서 맘을 바꿨다  
오를 수 없는 높이라고 누가 그랬냐고 맘을 바꿨다  
더럽고 찻찻한 너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맘을 바꿨다  
너의 반짝임은 얇은 방패임을 알고 맘을 바꿨다

껍데기만 투명한 너를 나는 당당하게 쏘아 볼 것이다  
달지 않아도 내 맘속 파란 돌을 힘껏 던져 볼 것이다  
영롱한 척하는 너를 흙탕물로 휘저어 볼 것이다  
반짝이는 얇은 방패를 내 짧은 창으로 찔러 볼 것이다

깨 부셔진 너의 조각들이 솔직함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그 반짝임들 위에 당당히 서 있을 것이다